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멀티 - 미디어 봉사단 창설한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교회는 시대에 부응하는 목회전략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봉사단을 신세대 중심으로 구성하여 대 사회 및 선교영역을 넓히기로 하였다.

교회음향과 컴퓨터 작동을 통한 제반업무를 관장하게 될 멀티-미디어 봉사단은 Audi-Visual system을 통한 영상 예배, Home-page 운영, 목회자료 컴퓨터 입력 등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커

뮤니케이션 매체 활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케 된다.

당회는 지난 8월 6일 본 봉사단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 발표했다.

- 지도 정운돈 • 부지도 용석범
- 단장 조철기
- 단원 홍증표 이강인 송인권 김시환 김혜연 윤요셉 정치는 김창수 정 건 이현정 김은희 박정심 오선혜 사무국장

농촌전도 봉사대 승전보고

- 많은 결신자 얻고 -

지난 8월 8일 부터 11일까지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상리교회에서 2000년 농촌 전도대에 전도활동과 봉사활동이 있었다. 복음의 감격을 안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품은 53명의 정예화된 대원들이(지도 이규정 목사, 단장 최중시 장로) 구슬땀을 흘리며 전도와 이·미용 봉사, 한방의료봉사, 여름성경학교와 예배당 보수 공사등으로 뜨거운 3박4일을 보냈다.

취사 연인원 700여명, 교회학교 학생 109명, 침술 78명, 이·미용 148명, 전도집회 참석주민 153명중 결신자 37명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특히 이웃주민들의 좋은 호응가운데 상리 초등학교를 빌려 그곳에서 전도집회 장소와 숙소를 마련하였고 전도집회때 결신한 37명 가운데는 상리 초등학교 교장인 이우식 선생도 포함되었다. 이번 전도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상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천광훈 전도사는 "서울교회 농촌봉사단의 수고 덕분에 교회 목회에 새로운 큰 힘을 얻었으며 또한 교회 안과 밖을 아름답게 수리하게 된 것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친히 재정적으로 노력 봉사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였다.

8월 학습·세례식 거행 예정

8월 학습·세례식이 16일(수) 2부 예배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지난 6일(주일)에 실시하였고,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3일(주일) 2부 예배후 403호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14일(월) 오후 6시 30분 403호실에서 추가 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문답은 15일(화) 오후 7시 403호실에서 실시된다.

새예배당 지붕을 씌우다

건축위원회(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지난 11일(금) 마침내 지붕을 덮는 옥탑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이로서 지하 3층 지상 8층의 외형이 이루어졌으며 이번주 부터는 주변 정리와 함께 벽돌 쌓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냉·난방 설비공사와 방수 작업이 계속되고 내장 공사를 바쁘게 서두르고 있다.

이미 3300석 의자 주문이 강대상과 함께 이루어졌고 파이프오르간은 주문제작인 고로 3년후에 설치케 된다.

- * -

탈북난민보호 UN청원 서명 -800만명 달성-

지난 10일 탈북난민보호 UN 청원 서명 800만명 달성기념 감사에 배가 프라자 호텔에서 있었다.

이 날 우리 교회는 67만명을 서명하여 전국 교회중 1위로, 박순봉 권사는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심판부장으로 각각 수상을 했다. 10만 부장으로는 지금까지 김인식 권사와 김세제 집사에 이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성도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태훈 전도사 부임

한국교회에서 목회실습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이태훈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약 1년간 계약으로 부임했다.

이 전도사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를 지난 5월에 졸업하였다. 1970년 생이며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남동생 한 명이 있다.





히스기야의 발병과 회복

성경 : 이사야 38장 1~8절



이종운 목사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합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 응답으로 15년의 생명을 넘으로 받았습니 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뒤로 십 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1. 인간은 항상 두려워하면서 기뻐해야 한다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1절). ‘그 때’는 유다가 앗수르의 침략을 당하던 시절이며 히스기야 재위 14년째입니다. 이 때는 앗수르 침략이 물러간 직후입니다. 그가 39세에 병들었다 나아서 15년을 더 살았다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29년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앗수르 군이 물러감으로 잠깐 기쁨을 누렸으나 뒤이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성도에게 끊임없이 환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항상 평안이 울 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위대함이나 선함이 인간을 병과 사망의 착고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훌륭한 지도자인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의 한창 때, 곧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이 극에 달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게 된 때는 앗수르 군이 멸망한 것에 대한 개가를 부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1절)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여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2. 히스기야의 병과 기도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1절)는 말씀을 이사야에게서 들은 히스기야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고난을 기도의 인내로 끝까지 극복하는 장면입니다. 아합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우울증의 표시로 한 것이나(왕상 21:4) 히스기야는 자기 몸의 병이 하나님께만 해결 받을 줄로 믿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3절). 이것은 히스기야가 자기 공로를 알아달라는 것이나 하나님께 항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의심함이 없이 진실과 전심으로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행위가 유다 백성들처럼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신앙의 방법으로만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하나님 진리대로 한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망 선고를 받고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1~2절). 그는 고난으로 인해 질식되지 않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만 전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는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3절),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심판 날에 주님이 갠아주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주의 목전에서’라고 말한 것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인생의 비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문제를 바로 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참된 눈물은 진리를 보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시 39:12),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 56:8),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히스기야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은 얼마나 많은지 침상이 배처럼 떠다녔다고 했습니

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새소리 같은 것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비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웅변이 아니고 극단의 절망 중에서도 부르짖는 소리이며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음성입니다.

3.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과 징조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5절).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 즉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환을 15년 더하시고 앞으로 앗수르 왕의 손에서 유다를 건지시며 보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돕기 위해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일영표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머물게 한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수 10:12~14). 구약 시대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삿 6:36~40).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기도 응답을 성립시키는 만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기도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약 5:13). 기도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모든 상처를 위한 약입니다. 히스기야는 원수가 침략했을 때 기도했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를 개혁했고 산당을 제거했으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소홀히 했던 의식을 소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범사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으나 죽음을 대면할 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심판의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백성의 탄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히스기야의 육체적 회복은 모두 기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복을 그의 평생에 보게 하셨습니다(시 128:5).



카메룬 선교보고

문형숙(선교사)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은 가봉 콩고 차드 나이제리아 중앙아프리카에 인접해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불어와 영어의 이중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내부에는 250여개의 부족들이 있고 각 부족은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 일치와 화합의 문제가 중대한 정치 문화 종교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150년에 포교되어서 카톨릭 40% 개신교 20%로 60%의 크리스찬이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영적능력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토착 종교를 완전히 버리지 못함으로 혼합적 기독교가 되어있는 까닭에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부활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의 종교 개혁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이 카메룬 복음화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대성 만큼 어려움과 장애물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며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러한 신학과 실천적 상황에서의 갈피를 못 잡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일보다 일신의 영달에 더 급한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신앙의 회복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혜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을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전의 사술을 행하고 있으며 사탄적 신비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인 보다도 오히려 회교도가 더 정직하다고 평이 나 있을만큼 기독교인들의 윤리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이름뿐인 성도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과 더 붙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기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없는 사역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뿐 아니라 세계의 이대 언어인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변화된 카메룬인들은 아프리카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로 악명높은 카메

룬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신 말씀처럼 타락의 범위만큼 은혜도 클 것입니다. 카메룬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자마자 사역에 뛰어들은 뜻내기 선교사가 낙망을 거처서 무릎을 꿇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선교라는 것을 아는데 일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선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한 존 스토틀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와 예는, 자기부정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고 다짐하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교회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지난 일년을 버틸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카메룬 교회에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카메룬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지킬 수 있는 경건한 교수들로 구성되도록, 그들의 가르침으로 학생들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의 형상을 심을 수 있는 기독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룬 선교회에 기도로 동참해 주신 서울 교회 성도님들이 심으신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보좌 앞에 드러지기를 바라며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 열린 바자를 위한 진행지침 확정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바자가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이를 위한 진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바라고 있다.

또한 열린바자를 위한 전체회의가 매주 3부 예배후 1층 본당에서 열리고 있는데 모든 준비위원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 진행지침

1) 바자 출품 개념

- ① 바자에 출품된 것은 곧 건축헌금으로 받는다.
- ② 새로이 결단한 건축헌금(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을 드린다.
- ③ 새로이 건축헌금을 작성한다.

2) 판매 장소 배정

- ① 면적 도면(점포, 표시)의 기준하에 점

포를 배정한다.

- ② 점포선정은 기획부 주관 하에 8월 27일 주일 찬양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점포 고문의추첨에 의거하여 배정한다.

3) 교구 점포운영

각 교구에서 출품한 물품은 각 교구 점포에서 판매하고 귀금속 및 서예품 등 특수 상품은 특판점에서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출품교구로 종합된다.

4) 식당 운영

- ① 식당위치: 옥상-주식, 앞뜰-간식류
- ② 주관은 여전도회 연합회가 한다.
- ③ 여전도회 연합회장은 식당운영에 관한 세무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8월 27일 주일까지 기획부로 제출하도록 한다.
- ④ 식당의 수익금은 여전도회 연합회의 명의로 건축헌금을 드린다.

5) 농·수산물 판매 운영

- ① 섭외부에서 주관하며, 8월 20일까지 납품 희망자로부터 품목별 견적서를 접수하고 8월 27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접수하여 결정된 품목을 판매 관리부는 교구점포에 배정하여 판매한다.

6) 위탁 판매 운영

섭외부와 위탁점포가 유기적인 연락으로 상품을 지정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질서 있게 동참케 하고 수익금은 바자 본부의 명의로 건축헌금을 드린다.

7) 교회학교 부서의 동참

교회학교가 동참하기를 원할 때는 지도교역자와 부장의 명의로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기획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혼일기

향기나는 목련이 되고파...

김영현(새 가정부)

결혼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나 보니까 아름답던 몽개구름은 자취를 감추고 곧 어둡고 힘들고 고된 현실이 코앞에 닥 치니까요. 웨딩마치를 울린지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honeymoon같은 세월이 일년은 같 것이라는 주위의 부러움이나 '아직도 신혼이지'의 샘나는 질문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도시락 싸주고 나면 나의 출근준비는 언제나 영망이 됩니다. 이럴려고 결혼했는가 물어보는 시간들이 늘어만 갑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고 아직도 견디고있는 이유가 있다면



방문마다 걸려있는 액자들 때문입니다. 안방문 액자는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써있고 욕실문을 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길게 써 있습니다. 건너방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써있고 베란다 문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 집안에 채우라고 써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화내지 못하게 하고 있고 포기하는 더욱 어렵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축복을 먼저 찾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아직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우리 둘만의 언어가 생겼고 우리만이 아는 비밀 암호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둘이 앉아 저녁기도를 들이는 시간만 되면 행복의 수치가 올라가고 삶의 가중치가 상공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은 물론이고 직장과 교회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피어나는 목련이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눈에 비친 목련은 깨끗함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그 목련처럼 깨끗하고 향기나는 신부로 살고 싶은 소망뿐입니다.

■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2천년 세계 선교 대회 기독교육자 대회 강사로 16일 영락교회에서 특강을 한다.
- 이미영양(이종윤목사, 홍순복사모 2녀)은 8월 23일 미국 뉴욕 Park Avenue 520 소재 Christ Church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8월 26일에는 네덜란드 Leiden대학에서 열리는 국제음악학회에서 논문발표를 한다.
- 강민희 집사(시온 찬양대 지휘자)는 대치동 소재 서울교양문화음악학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장혜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허인숙집사, 최용걸집사, 최일준집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제1권사회- 14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초보 엄마들이 오시면

작은 천국을 맛 볼 수 있습니다

김현주집사(유아부 자모회 총무)

금년 2월에 구성된 유아부 자모회는 매월 한번씩 모임을 갖고 유익한 정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자녀키우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우리 아기 사랑도 털어 놓습니다. 다행인것은 경험있는 자모들의 친절함 경험담이 초보엄마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어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자기집에서 사용하던 놀이기구와 각종 유아용 물품들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교환되고 수납되고 있어서 더욱 다행입니다.

서울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유아용으로 쓸수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기증을 받고 있으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부 자모모임은 매월 세째주 화요일 오전 11시 2층 유아부실에서 가집니다. 아기와 함께 오시면 모든 좋은것이 준비되어 있는 작은 천국을 맛 볼 것입니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건축헌금 바칠 수 있도록
2. 건축바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4.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5시30분

† 교외약도

